

## 학교집단뇨검사를 통한 I형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의 조기진단과 치료의 효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정성훈 · 안용주 · 김성도

**목적** :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은 소아에서는 11년 이내에, 성인에서는 8년 이내에 50%가 사망하게 되는 안 좋은 예후를 지닌 만성신장병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1998년부터 학교집단뇨검사가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우리는 학교집단뇨검사를 통해 진단된 무증상의 막증식성 사구체신염과 증상이 있는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의 예후를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우리는 1998년 이후에 입원하여 싸이클로스포린과 함께 또는 스테로이드만 단독으로 투여받고 있는 I형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환자 15명의 특징과 예후를 분석하였다. 추적관찰 기간은 평균 4.5년이었다 (2년에서 7년). 15명의 환자 중에 7명의 환자는 학교집단뇨검사를 통해 진단된 환아이고, 8명의 환자는 진단당시 신증후군이나 급성신부전, 육안적 혈뇨를 보이는 환아들이었다.

**결과** : 학교집단뇨검사로 진단된 환아들 가운데 남아는 3명이고, 여아는 4명이었다. 이들의 평균나이는 12.6세였다. 학교집단뇨검사서 4명의 환자는 혈뇨와 단백뇨를 보였고, 1명의 환자는 단백뇨만 보였으며, 2명의 환자는 혈뇨만 보였다. 혈뇨만 보인 2명의 환자는 추적관찰기간 동안 단백뇨를 보여 신생검의 적응증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의 환자가 진단당시 혈청보체치가 감소하여 있었다. Methylprednisolone pulse 후에 4명의 환자 (57%)가 혈뇨나 단백뇨없이 관해하였으며,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한명도 없었다. 학교집단뇨검사를 받지 않은 그룹가운데 남아는 7명이었고, 여아는 1명이었다. 이들의 평균나이는 12.1세였다. 진단당시 6명의 환자는 신증후군 소견을 보였고, 1명의 환자는 단백뇨와 함께 육안적 혈뇨를 보였고, 1명의 환자는 육안적 혈뇨와 함께 급성신부전의 소견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진단 당시 혈청보체치가 감소하여있던 환자는 4명이었다. 그리고 2명의 환자 (25%)가 관해를 이루었으며, 1명의 환자는 혈액투석을 필요로 하였으며, 1명의 환자는 신기능이 저하되었다.

**결론** : 위의 사실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연구는 학교집단뇨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과 조기에 많은 양의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와 urokinase 치료가 I형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환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치료계획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